

## 『대학교육』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참 석 자	김명자(숙명여대 교수, 사회) 김인중(서울대 교수) 이효성(성균관대 교수) 이현정(대교협 사무총장) 김형근(대교협 정책연구부장)
기록 및 정리	현경석(대교협 정책연구부 선임연구원)
일 시	1999년 6월 9일(수)
장 소	사학연금회관 20층 보헤미안 소회의실

**사 회(김명자)** : 우선 『대학교육』지가 100호를 맞이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대학교육』지가 그 동안 다루었던 주제나 내용 등을 살펴 보면서 『대학교육』지에 비친 대학의 모습이나 변화 등을 다루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조사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 형 근** : 『대학교육』지가 창간된 지도 벌써 17여 년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80년대와 '90년대 『대학교육』지가 다루었던 문제 그리고 앞으로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대학교육』지가 나아가야 할 길, 이렇게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 회** : 크게는 10년 단위로 끊어서 논의해 보되, 그 동

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서 100호에 이르게 된 과정을 알아보고, 『대학교육』지가 대학의 변화나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잘 다루었는가를 검토하면서, 보완하여야 할 점이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할 점은 무엇인가를 짚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현 청** :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접근 방법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이 효 성** : 창간호부터 99호까지의 목차를 쭉 살펴보면, 시대적인 변화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80년대의 총장 직선제, '90년대의 대학 자율화 문제 등 해당 시기의 과제와 성격을 규명하고 『대학교육』지가 다룬 문제들은 어떠한 것들이고, 다루지 못한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 형 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족된 것이 지난 1982년이고, 『대학교육』지가 창간된 것은 '83년 1월입니다만, '83년부터 '86년까지는 제5공화국 시기로서 대학의 규제 정책 등이 다루어졌고 '87년 이후에는 등록금 문제, 학생들의 대학운영 참여, 그리고 대학 자율화와 관련한 갈등, 그리고 전임대에서부터 시작된 총장 직선 문

제, 교육부에서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총장 추천위원회 등 간선 형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직선제의 폐단으로 인하여 다시 사립대의 법인에서 총장을 임명하는 경향, 그리고 학생운동(한총련 등), 대학의 학생 총원의 문제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2년 전부터 일부 지방대학의 학생 총원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 이 문제는 더욱 부각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 틀림없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편집인쇄 체제에 있어서는 '90년대 초까지 활판인쇄 방식을 취하다가, 전산시스템 도입 이후 '94년부터는 거의 한글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 효 성 :** 그러면 이제 『대학교육』지가 그 때 그 때 대학교육과 관련된 문제들이나 쟁점들을 잘 다루었는지, 혹은 이것들을 회피한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 방향이나 논조는 옳았는지도 평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 회 :**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문제의식들을 상당히 가졌던 적이 있다고 기억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학문, 전공 선택, 최근의 학부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쟁점으로 다루어졌지만, 쏟아지는 정책이나 문제들을 가끔씩 많이 다루고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성과는 왜소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대학교육』지는 결국 앞으로도 기관지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겠지요?

**이 효 성 :** 편집이나 내용 체제가 기관지의 성격보다는 탈 기관적인 방향으로 보다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 현 청 :** 기관지의 성격도 지니고 있지만 유일한 대학관련 전문지로서의 역할도 다소 해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만, 시대적 조류와 상황에 대한 문제의 반영은 좋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80년대와 '90년대의 대학 학사

운영, 대학문화에 대한 반성이 소홀하였고 취약한 복지 문제, 대학 구성원과 관계된 문제 등이 간과된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시대적 상황 때문에 대학의 이념이나 학문, 본질(예 : 인문·사회과학 등 학문과 관련된 주제, 질 관리, 상아탑적인 측면 등)을 다루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 효 성 :** 기관지적인 성격 때문에 현실적, 정책적인 측면은 많이 다루었지만 대학교육의 이념, 기본원리 등을 폭넓게 다루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김 명 자

**김 형 근 :** 『대학교육』지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로 다루게 되는 것은 대학의 조직과 인사영역인데, 교수(교직원), 학생, 총장, 재단 등 네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재단)과 정부는 비슷한 시각이나, 대학사회 내부로 들어가면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져 예를 들어, 총장 선출이라든가 교수협의회 참여 문제, 재단의 인사권 관여 문제를 『대학교육』지에서 게재할 때, 어느 한 쪽의 의견만을 게재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수부문의 경우 일본은 고등교육분야 연구자가 약 400여 명이나 있으나, 우리 나라는 아직 연구층이 취약한 편으로 일부 교육학자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학교



김 안 중



이 효 성



이 현 청



김 형 근

육』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입장에서는 회원 대학 총장님들과 그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상당히 상충 피리될 때 이러한 내용을 게재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균형 감각을 지니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동안 사실 대학(재단이나 총장)의 입장에 상충되는 글이 실린 적도 있고,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의 입장이나 학생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글들도 앞으로는 많이 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밖에 고등학교나 기업 쪽의 관점이나 생각이 담긴 글들도 가끔적 기회를 많이 부여하여 『대학교육』지를 다양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겠습니까.

**이 효 성 :** 『대학교육』지는 한국대학교육협회가 발간하는 기관지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논지가 대학교육의 방향이나 정책이 어떠하여야 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구성원이나 교고생의 불만과 요구가 무엇인지도 좀 더 들여보고, 그 동안 소홀히 다루어진 편이 있는 대학생 문화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교육의 대상인 대학생들 자신의 목소리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고경칼럼 신설 등 수요자 중심의 『대학교육』지 편집과 이에 따른 운영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 현 청 :**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대학교육』지가 기관지 성격을 지녔습니다만, 대학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되고 교육 공급자나 수혜자의 측면 혹은 경영자 또는 가르치는 자, 학습자의 측면에서 이끌어야 하겠지요. 『대학교육』지가 대학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한 발 앞서 대학교육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개혁이나 체제 변화나 모델 등을 미리 보여줄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다양화, 특성화되어 가고 있는 앞서 가는 대학을 집

중 소개하고, 외국의 선진 고등교육기관들도 소개하여 개혁의 시대에 발맞추어 새로운 방향이나 혁신의 마인드를 심어 주어 대학인의 인식 제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효 성 :** 교육부의 대학정책을 이끌어 가는 방향에서 비전이나 조망을 제시하고, 편집위원의 구성은 보다 신경을 써서 대학교육의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분들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현 청 :** 예를 들어 2002학년도 대학입시를 시리즈로 다루어 이 제도의 실체와 문제점, 나아가 대안 등을 논의한다든가, 최근의 「두뇌한국 21」 계획에 이견이 있다면 이 제도의 집중 분석과 대안,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 회 :** 그러면 『대학교육』지가 100호를 맞이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표라 할까요. 어떤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과제, 그리고 좌표 등을 얘기하여 주셨는데요. 『대학교육』지는 기관지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전문지로서의 유익성을 보다 증대시키고, 다양한 대학관련 계층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양화를 추구하다 보면 그 성격이 모호해질 수도 있는 난점이 있습니다. 『대학교육』지가 앞으로 대학사회에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하여 편집자문위원의 역할 제고뿐만 아니라 편집진의 연구 노력도 가일층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힘써 왔다고 자위를 해 보기도 합니다만 ... 다른 분들에게 『대학교육』지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효 성 :** 한국대학교육협회가 think tank로서의 역할도 해오고 있지만 미진한 점이 있다면 한국교육개발원과 같은 유관 연구기관의 연구과제나 연구동향 등을 잘 알아보아 이를 적절히 반영·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

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 형 근** : 『대학교육』지가 다루는 국내의 주제나 영역이 비슷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동향을 신속·정확하게 담는 것이 조금 어렵더라고 적극적인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교육』지가 그 동안 논문 중심에서 근간에 문제(issue) 중심으로 변화된 것이 변화의 하나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도 독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체계가 다양하고, 종합적인 내용이나 시각을 담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교육부가 발행하는 『교육마당 21』의 경우, 과거에는 무상으로 배포하다가 최근에는 무상배포와 유료화로 이원화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효 성** : 국민 모두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대학교육』지는 독자층이 아무래도 제한되기 때문에 독자층의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 당국과 보직 교수, 관련 교육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내용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 형 근** : 따라서 유가지로 전환하는 방안은 어떠한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단시일에 어렵다면 인터넷을 통하여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즉, 좀더 쉽게 그 내용에 접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 회** : 그런데 무가지로 배포하여도 독자층이 얇은데, 유가지로 전환하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교수들은 사실 읽어야 할 것이 전공자료만 해도 넘쳐나기 때문에 대학행정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읽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익한 정보를 다양하게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고요, 유가지는 조금 비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효 성** : 교수들은 전공영역 외에 다른 분야에 별로

관심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일반 평교수들을 최대한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현 청** : 『대학교육』지 독자를 감안할 때, 다양한 대학의 목소리나 정책의 어떤 준거를 제시하여 독자층의 확대를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는지요. 『대학교육』지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대학 구성원들에게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하여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게 하면, 독자층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효 성** : 이왕에 인터넷 이야기가 나왔으니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인터넷 공간에서 대학교육정책이나 대학 현안문제(쟁점)에 대한 논의의 광장(forum)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논의를 촉발시키고, 대학교육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가상의 장소로 자리매김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 형 근** : 한편 『대학교육』지는 고등학교에도 배포되기 때문에 입시관련 내용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반면 기업체는 아무래도 관심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교육』지에 크게 흥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입시(정보)코너 등을 정기적으로 개설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효 성** : 대학입시정보를 부록으로 편성해 보는 것도 어떨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 형 근** :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업도 대학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이 있는데, 『대학교육』지가 대학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이해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정보를 추가해 보는 것은 어떨는지요?

**이 효 성 :** 아무래도 기업과 대학간에는 간극이 있기 마련인데, 오히려 대학생을 위한 취업정보(기업관련 동향 등을 포함) 등을 실어주는 것도 좋으나 취업전문지가 이보다는 더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효과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갑니다.

**사 회 :** 또한 『대학교육』지는 '격월간' 이기 때문에 신속성이라는 점에서 취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인력(수요) 동향이나 변화 같은 것을 다룰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 효 성 :** 대학의 전공과 관련하여 취업 동향 같은 것을 인터넷에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 회 :** 특정 관심영역을 집중 개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김 형 근 :** 논단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 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격월간이 약간 애매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효 성 :** 『대학교육』지가 다양한 관심 대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section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 호별로 교수, 직원, 학생, 산학협동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입니다.

**이 효 성 :** 『대학교육』지의 광고 게재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 아닌가요?

**김 형 근 :** 그렇습니다. 『대학교육』지 발간 예산이 금년부터 대폭 삭감되어, 『교육마당』지나 『교육개발』지와

마찬가지로 협찬 광고로 부족예산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광고 수주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안 중 :** 『대학교육』지는 대학교수가 주 독자층이 되어왔는데, 독자층의 한계가 있던 하지만 원래 목적이 충실하면서 전문지의 특성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대학의 운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적인 내실화를 추구해 나가고, 좋은 원고나 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전문지로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도록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김 형 근 :** 우리 나라 대학들이 서 있는 위치를 감안하여 동남아를 비롯한 외국 대학의 선도적인 측면도 소개하고, 대학생들의 문화라든가 세계화, 그리고 대학(생)의 복지문제 등도 폭넓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는 대학의 복지와 관련하여 대학생활 협동(소비자)조합 같은 부문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이런 점을 『대학교육』지에서도 좀 더 관심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 효 성 :** 이런 것은 대학문화의 한 영역으로 포함시켜 다루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 형 근 :** 예를 들어 자판기 관리라든가 생활복지 편의시설 운영 관리, 보험 등이 제대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학문화 영역으로 (기획)연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효 성 :** 연구, 대학경영, 대학문화 등을 시리즈로 구성, 연재하여 그 내용을 보다 다양하고 특색을 갖추도록 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사 회** : 그 외에 입시정보, 대학평가, 그리고 외국 대학에 관련된 자료를 보다 다양하게 활용, 취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효 성** : 대학입시, 평가관련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외국과의 비교라든가 외국의 최근 동향 같은 것도 다루면 더 좋지 않을까요?

**사 회** : 전반적인 편집체제는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되 투고 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김 형 근** : 투고 요령이나 방법은 『대학교육』지를 통해 매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논문이나 연구결과의 요약 게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효 성** : 투고 요령이나 주제 내용 등을 더욱 더 자세히 광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 안 중** : 투고 욕구를 불러일으키도록 애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그 동안의 『대학교육』지의 과거 내용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정기적으로 대학인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 회** : 장시간 동안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대학교육』지가 100호를 맞이하여 더욱 새롭게, 그리고 21세기에 걸맞은 대학교육의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는, 보다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정간물로 자리잡게 되길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